

# 네티즌들 "민주노총 총파업에 힘 더한다"

8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7.04 19:01

## 민주노총 국민건강권쟁취 총파업 돌입, 네티즌·시민 지지 쇄도

네티즌·시민들이 민주노총 국민건강권쟁취 총파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고무된 표정이다.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응원글이 쇄도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보수언론인 조중동에 속아 민주노총 파업을 사안시켰지만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니 자신들이 속았고, 이제 국민촛불과 함께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네티즌들은 또 "민주노총 총파업 배후는 바로 촛불"이라며 "오만과 독선, 부패와 폭력으로 찌든 이명박정권과 민주노총 총파업을 왜곡보도하는 일부 보수언론 등이 없어질 때까지 힘모아 싸우겠다"고 말한다.

'노동과세계'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네티즌과 시민들 반응을 엮어 몇 차례 나눠 연속 게재한다. 네티즌·시민들과 민주노총이 굴절없는 직접소통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역량을 모으고 강화하기 위해서다.

첫 글을 소개드린다. 다음은 네티즌 '파란해벌' 씨가 "네티즌들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힘을 실는 방법"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힘을 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네티즌들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힘을 실는 방법**

그간 조중동은 갖은 농간으로 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인 단체행동권(일명: 파업)을 행사하면 무조건 "경제를 해친다" "강성노조가 문제다" "파업공화국이다" "귀족노조다" 심지어는 "빨갱이들이다"까지 등등 온갖 악선전으로 노동자들 생존을 짓밟으면서 기업주들 이익만을 대변해왔다. 때문에 대부분의 노조는 파업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권익을 지키면서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럽 노동조합 파업은 시민들이 악선전에 노출되지 않은 관계로 상당히 호의적이다. "어차피 살려는 파업이고 언젠가 나도 파업을 하게 될 텐데 서로 좀 불편해도 참지"라고 하면서 운송노조가 파업을 벌이면 먼 거리도 걸어가는 등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유독 우리나라만 썩어빠진 언론과, 보수단체, 한나라당, 경찰들, 정보기관들이 뿔뿔 뭉쳐서 (파업을)공권력으로 두드려 잡아왔다. 지금 시민들에 대한 경찰(소위 공권력)의 무차별적 폭력행위는 노동조합 투쟁—엄밀히 말하면 노동자들 생존권 투쟁—을 때려잡으면서 이룩한 체계와 지휘계통, 물리력행사 방식, 선무방송, 주동자 색출, 추적과 검거, 압수와 수색 등이 그들만의 쌓인 '노하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동조합 생존권투쟁, 아니 국민들이 만든 한 조직인 노동조합 투쟁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모든 노동조합에 칭찬과 격려로 힘을 실어 주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인터넷(홈피, 의견글, 댓글), 격려전화, 집회현장에서 박수보내기, 이것만으로도 노동자들 전투력은 급상승한다.

**노동조합 투쟁(파업 등)을 왜곡보도하는 언론사들에게 된 매를 먹이자.**

노동조합을 단지 '지들 밥그릇만을 위한 이익집단'인 것처럼 호도해 시민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공작을 10년 넘게 하고 있다. 한미 FTA 반대 투쟁으로 현재 민주노총 간부들 수 십명이 수배, 구속됐다. 한미FTA 해악에 대해서는 다 알 것이다.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는 이런 세력들을 혼내야 한다.

<b>파업을 하지 않거나 미적거리는 곳에 항의하자.</b>

점잖게 혹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부담스러워 한다. 인터넷, 전화 등을 사용하면 된다. 사실 이런 곳들이 좀 있습니다. 일명 어용노조인 경우나 눈치를 많이 보는 노조집행부가 있는 곳도 있다. 이런 노조에게도 자극을 줘야 한다.

<b>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신자.</b>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적인 사항이다. 요즘 우리나라 노동조합에 젊은 노동자들이 많다고 말하기 힘들다. 사업주들이 기업을 해외공장으로 빼내고 한편으로는 신규채용을 중단하거나 자신들의 친인척들을 채용하고 간부들을 대열에서 떨어뜨림과 동시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미래를 봐서도 걱정이야. 자신과 가장 관계가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이 거룩한 국민행동을 한순간이라도 등한시하면 우리나라는 결국 이명박정권과 뉴라이트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가까운 노동조직에 가입하자.

노동자들이 몽칠 때 언제나 역사는 진군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노동조합 힘이 남김없이 발휘되는 2008년 촛불항쟁이 되었으면 한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